참자기를 탄생시키려면 자기가 자기한테 머리 숙여 승배해야 해요

☞ 21면에서 계속

들어 공산주의 나라가 독재로 다스려서 이익이 뭐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계발을 한다면, 또 모든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다면,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3, 4년 전 얘기일 겁니다. 나는 중공이든지 소련이든지 어디든지, 민주화로 좀 이렇게 같이, 물을 좀 갖다 섞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도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섞지 않는다면 살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입니다. 전부 계발하기도 희박하고, 또 불국토를 가져오는 것도 희박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큰 절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체들이 잘 살 수도 없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서 생길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너그러워야, 썰물 밀물이 같이 혼합을 해야 살 수 있는 기대를 품을 수 있고, 또 지혜가 나오고 물리가 터지고 불국토도 이룰 수 있는 거죠. 과학도 더 나가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원력이 아니라, 서로 둘이 아니게 교류를 맺게 하고 인연을 맺어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런 얘깁니다. 원력이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를 죽이고, 어느 나라를 살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기 앉은 자리 딱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자기네 집 지키지 않는 사람 여기에 한 분이나 계신 거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다니다가도 자기네 집으로 들어갑디다, 모두. 거기는 꼭 지키더군요. 어디 나가서 여관에 가 자도 내 집이 있다는 건 꼭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부, 이러한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들을 낳고 키워도 그 애가 스스로 밝은 길을 걷도록 가르칠 때, 말로 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전화통이 있고 그 애 전화통이 있는 이상, 내가 그 애 번호를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 그거는 억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뿌리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다 넣어도 넣은 사이가 없이 스스로서 밝아서 스스로서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어어! 이 절은 뭐 이상해." 그러죠? "뭘 놓으래? 사랑도 돈도 다 놓으면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미거한 소린 하지 마세요. 사랑도 돈도 다 그 속에 있는 건데 누가 하지 말라나요? 하되,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 소립니다. 자기 게 아니라 자기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그것을 잘 아신다면 자기는 관리인으로서, 시봉자로서, 자기의 시봉자로서 올바르게 함으로써, 또는 시봉자는 주인에게 '너는 차가 고장 났으면 올바로 고쳐서 끌고 다녀라!' 이렇게 하라 이 소립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당장 시한에 닥치는 일들,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일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넘어갈 수 있었겠나? 박 대통령 당시에도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되려니까 그렇게 됐지!' 이러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됐지!'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거지마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마는 너무 남한테 해롭게 하고 그래서 열 번만 그렇게 끌려가 보세요. "그 새끼는 내 새끼 아냐! 가만 둬, 잡혀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 버립니다. 열 번을 타일렀는데도 열 번을 붙잡혀 간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는 건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어지더라도 중심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집이 비면 남한테 차여! 환경에 따라가다 보면 그만 흔들리고 중심이 없고 집이 비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이 들어서서는 내 집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달마 대사가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오니깐 내 집에 누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나는 집이 없어서 비워 놓은 딴 집에 들어가서 털보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가지 벌어졌으면, '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달마 대사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달마 대사로 몸이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달마 대사는 재주가 그만큼 없어서 바뀐 겁니까? 남의 집을 뺏을 줄 몰라서 뺏긴 겁니까? 그러면 그만큼 공부해 가지고도 집 뺏길 정도라면, 집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면 그건 달마 대사 자격이 없죠, 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느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들었으면 한번 음미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마음의 도리로, 이렇게도 이끌고 저렇게도 이끌고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가난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도 그 도리를 안다면 나물죽을 먹고도 껄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멋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기반찬에 잘 먹고선 그냥 흐드러지게 좋아하는 것보다 참 얼마나 멋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맛이란….

여러분이 여기 스님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좋고 좀 더 맛있는 거는 여러분과 같이 공양을 하고, 좀 더 후진 거는, 또 후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후진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감지덕지죠. 그래서 천차만별로 나눠 주죠. ' 스님네가 심부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미처 나는 몰랐구나. ' 하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어렵구나. 이렇게 중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은 내가 애당초에 생각을 못 했구나.'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 아니겠는가, 어렵다는 것도. 그러나 어렵다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다. 왜? 내가 그건 어렵다고 생각할 게 없어. 나 하는 대로 그냥 꾸준히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니까. 저 물 흐르듯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마음이 아는 걸 우주 법계에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마음대로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지 않게 살아라." 하는 얘깁니다.

남이 두렵고 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게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고,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참, 부모도 없고 불쌍한 애들, 어떤 때는 등록금도 못 내고 그럴 때는 말이죠, 참, 그런 거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주었다는 거 말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체면도 있지. 그럴 때 그냥 내주면서도, 그것은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마음 편안하려고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 편안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중노릇하기 참 어렵구나.' 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빚을 내서 시주를 한다고 가져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 줄 때가 있죠. "아, 누가 빚 내 가지고 오랬어?" 그러고 주면서 "네가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 난 괴롭기 싫어. 이게 이자 늘어 가면 내가 죽겠어. 당신이 죽겠는 것보다 내가 죽겠어. 그러니까 난 이거 안 되겠어. 갖다 갚어. 심부름 좀 해!" 이럽니다. 내 심부름 좀 하라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절에 와서 부처님을 친견 못 하고,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어떤 스님네들은 "병고치는 게 중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단이다." 이러기도 합니다. 이단이 아니라 일단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거는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일단 되기 위해서, 정법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 한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픔을 겪어 봤고, 내가 내 아픔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부처 되기 위해서 이 공부 한 게 아니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야, 이건. 누가 뭐라면 어때요?

내가 겪어 보니까, 이렇게 살아 보니까 참,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주지 않구요, 똥이 안 나와도 대신 똥 눠 줄 사람도 없구요, 허허허, 참 피곤해도 누가 대신 피곤해 줄 사람도 없고, 누가 대신 울어 줄 사람 없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아픔처럼 아프고 불쌍하게…. 정말 뼈아프게 아픈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방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이럽니다. 왜? 내가 아픈 거를, 내가 빨리 어떻게 어떻게 낫게 하려고 말입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얘기 듣기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더 말할 게 있습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모든 게 나 괴롭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빨리 나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자꾸 얘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고선 좀 잠시라도 이렇게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소 안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부처가 변소 안에 있느냐고 그러더군요. 예전에 두루마기를 입고 변소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급하니까.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어찌 변소 안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때에 어린 마음에도, 지금처럼 나이나 먹었으면 그냥 픽 웃고 말았을 텐데, 그때는 그냥 입이 근지러워서, 허허허. 그러니깐 좀 모자랐죠. "아니, 우리가 변소 안에 드나드는데 부처가 변소 안에 없다구요?" 아, 요렇게 되받았지 뭡니까? 허허허.

그리고 그 스님한테도, 아유, 모자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때 몰라서 그랬죠. "당신에게는 반밖에는, 반절밖에는 못 하겠소." 이랬거든요. 허허. 그 왜 그랬나? 그때는 너무 삐죽하고 빳빳하고 아주 눈에 불이 펄펄 날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너그럽게 벼 이삭이 숙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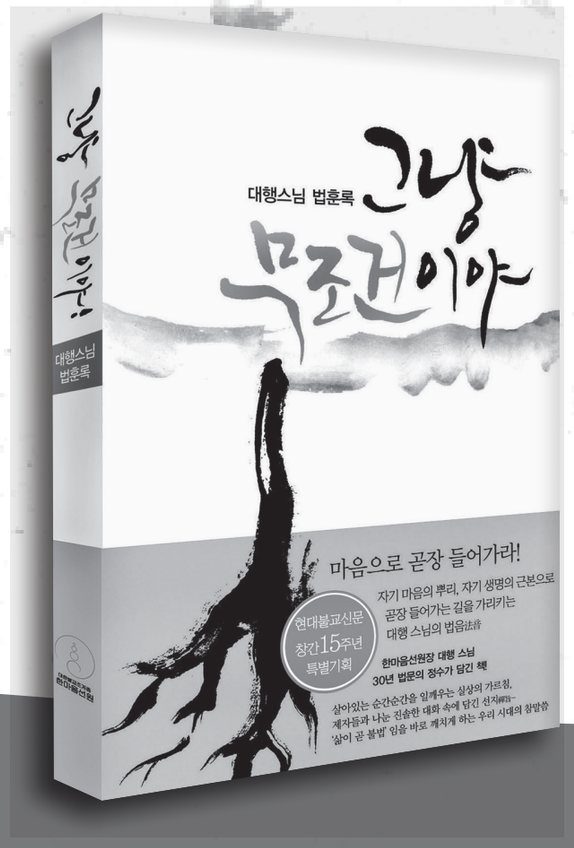
또 무슨 표창장을 주면 "뭐 잘했다고 상장 줍니까?" 이러고, 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스님네들이 내게 뭘 주느냐 이거야. 그러곤 그 자리에서 박박 찢어 버리는 그런 행태. 그러니깐 몹시 나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벼 이삭이 첫 번부터 익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저게 바로 내 모습이야!', '저게 바로 나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보고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다 스승이야, 내 밑거름이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 줬지. 안 받아 줬어도 거름이요, 받아 줬어도 거름이에요.

어떤 한 큰스님은 너무 너그럽게 날 받아 주시고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아주 나이 어리다고 그냥 남몰래 아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욕을 합니다. "저 노장은 도무지, 저 하치않은 애한테 저런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누룽갱이 한 조각이라도 몰래 주느라고, 세상에! 이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마음! 아무리 거대하고 잘나도 그런 마음을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죽으나 사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런고로 그분들은 죽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은 앞으로 죽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도, 사람이 진화돼서 다시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올 뿐이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차원이 바로 내일의 차원이요, 또 내일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모든 걸 놔라, 놔라." 이럽니다.
놓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사는 자체가 다 바로 그놈이 하는 거라고 믿고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근본을 믿고 다 맡겨 놓지 않는다면 참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